

문학치료의 과정으로 본 「민옹전」

신혜금*

차례

1. 서론
2. 문학치료의 특징과 과정
3. 문학치료의 과정으로 본 「민옹전」
4. 결론

1. 서론

치료학, 상담학 등의 실용학문은 외국의 축적된 연구물들이 수용된 후 현장에 맞게 적용, 발전되어 가는 경우가 많았다. 문학치료도 마찬가지다. 일본, 미국, 유럽의 이론과 임상결과들이 소개되면서 문학치료에 대한 논의가 싹트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작품과 임상사례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에 대한 학문적 연구¹⁾와 활동들²⁾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1) 우리나라에서 문학치료, 독서치료 관련 최초의 석사논문으로 김태경(1984)의 「독서요법이 정신과 입원환자의 증상별 행동과 질병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이다. 독서치료관련 최초의 박사 학위 논문은 윤달원(尹達媛)(1990)의 「非行靑少年의 自我概念 育成을 위한 讀書療法의 效果」(성신여대)이다. 1984년부터 1999년까지는 한 해에 1편이 채 못 되게 논문이 생산되다가 2000년에 2편, 2001년 3편, 2002년 4편으로 점점 증가된다. 그러다가 2003년에 25편, 2004년에 30편, 2005년 53편, 2006년 66편, 그리고 2007년 75편, 2008년 96편 발표되었다.

그런데 심리학이나 치료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부터 '이야기'는 구비문학의 형태로 오랜 동안 인류 곁에 자리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세상과 인생의 다양함을 알려주고, 맺힌 감정을 풀어주고 대변해 주는 작용을 함으로써 정신균형이나 안정을 회복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독자가 스스로 문학읽기를 통해 자기 성장과 정신균형을 이루는 것도 문학치료라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학치료의 개념을 좀더 적극적인 의미인 치료자(therapist)의 개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즉 인지적, 정서적 혹은 행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치료자가 개인면담 혹은 집단상담을 통해서, 사회적·개인적 갈등과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한다. 또 치료(도움)를 필요로 하는 독자를 내담자라 칭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연암 박지원의 「민옹전」을 통해 이야기꾼과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치료적 기능을 하였는지를 보려고 한다. 특히 이 작품의 흐름과 요소를 문학치료의 과정에 초점을 두어 현대이론에 적용해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민옹전」을 치료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 몇 편을 살펴보겠다.

황인덕은 그의 논문³⁾에서 이야기꾼으로서의 민옹의 능력과 특성, 신분적·시대적 성격을 규명하려 하였다. 그는 민옹이 이야기꾼으로서 적극성,

2009년 4월 현재 국회도서관에 등록된 문학치료 관련 인접분야(글쓰기치료, 독서치료, 독서상담 등) 연구를 포괄하면 학위 논문은 대략 365편 정도이고, 이 가운데 박사 논문은 22편이다.

지금까지 문학치료 학위 논문에서 주로 다루어진 주제는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같은 자아개념에 관련된 발달적, 예방적 차원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임상적인 주제 역시 소수 다루어졌다. 예를 들면 정신과 입원환자들의 증상별 행동과 질병예후(김태경, 1984), 청소년의 비행문제(김용태, 1986), 우울증(류혜숙, 1998; 김윤희, 2003; 박병락, 2003), 외상경험(백정미, 2005) 등이다. 독서치료는 발달적 차원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 임상적 차원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이다.

- 2) 교도소, 보육원, 특수학교 등의 시설에서도 문학을 매개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임상 프로그램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 3) 황인덕, 「이야기꾼으로 본 민옹전의 민옹」, 『구비문학연구』 8, 한국구비문학학회, 1999.

상황적응력, 의식의 주관성, 재담론적 골계가적 능력을 갖추었음을 밝혔으며, 아울러 민옹의 신분적 한계가 이야기꾼으로서의 비판의식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구비문학의 한 양상을 밝히는 귀중한 소득이라 할 수 있다.

박기석은 그의 논문⁴⁾에서 박지원 문학이 자아치료와 사회치료적 측면에서 어떻게 기능하였는지를 논하였고, 또 다른 논문⁵⁾에서는 「민옹전」을 분석하면서 골계와 우화로 민증을 깨우치게 한 민옹의 치료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또한 이 작품을 통해 박지원은 관념론에 빠져 있는 사회를 비판하고, 현실에 입각한 자유분방한 사유태도와 비판의식을 드러냄으로써 이용후생을 기반으로 하는 실학사상의 단초를 보여주었다고 했다. 이 논문은 「민옹전」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주의 비평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민희⁶⁾는 「민옹전」을 한 편의 심리현장보고서와 동일하다고 평하면서 이 작품을 연암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근거로 삼으려 했다. 이때 연암의 심리를 융의 분석심리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게슈탈트 이론을 민옹이 사용한 치료이론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이 논문은 심리치료적 접근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심리치료 가운데 특히 문학치료에 대한 성격 규명이나 차별적 관점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민옹전」에 대한 심리치료적 연구에서 좀더 나아가 심리치료 분야 중에서 특히 문학치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문학치료 안에서 치료자와 내담자는 어떻게 설정되고, 치료과정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만약 초기, 중기, 종결이라는 단계적 흐름이 있다면, 각 단계에서 문학은 어떤 역할을 하며, 이때 이루어지는 중요한 작업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문학의 치료적 가능성과 형태, 방향,

4) 박기석, 「연암 박지원의 문학과 문학치료」, 『인문논총』 11, 서울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03.

5) 박기석, 「민옹전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6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3.

6) 이민희, 「심리 치료 측면에서 본 민옹전 소고」, 『고전문학연구』, 한국고전문학회, 2007.

전통 등을 조금이나마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문학치료의 특징과 과정

2.1. 문학치료의 특징

2.1.1. 감동에서, 동일시, 직면으로의 자연스러운 연결

문학이 갖는 치유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감동에서 온다고 할 것이다. 문학이 지닌 감동의 힘은 우리의 감정을 무언가에 강렬하게 휩싸이게 한다. 그 강렬함은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아 의미를 곱씹게 만들어 작은 위로가 되어 주기도 하고, 인간 내부에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제도, 편견 등에서 해방되는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한다.

그러므로 문학치료 과정에서 내담자는 동일시를 통한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여야 하며, '왜 나는 이 등장인물이 싫었지?', '나는 왜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났지?' 등의 질문을 하면서 그 감정의 정체를 들여다보게 될 때 일종의 감정정화가 일어나게 된다.

진정한 치유란 고통에서 순간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면서 고통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학작품을 읽고 나서 자신이 지닌 상처를 하나씩 어루만지는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이다.

2.1.2. 저항감의 최소화

이때 문학치료는 문학이라는 매개가 있기 때문에 정화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무안하거나 당혹스럽지 않게 불편함을 줄이면서 자기문제를 보게

되는 기회를 준다. 내담자가 작품을 읽은 후 생기는 사고나 느낌에 대해 치료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텍스트인 '문학'은 안전장치로 작용하기도 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나 핵심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결국 우회 역시 빗대거나 반대로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치료자도 내담자도 대화하기 전에 가졌던 느낌과 인상과는 다른 느낌을 갖게 된다.

2.1.3. 창조적 삶을 이끄는 힘

내담자가 책읽기를 통해 변화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정서, 인식의 틀, 행동 면에서 달라진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변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좀더 창조적으로 단계적으로 삶을 영위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진정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부분이나 전체를 나만의 표현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내어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인정받음으로써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주인임을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2. 치료의 과정과 흐름

심리치료, 미술치료 등 대부분의 치료가 그렇듯이 문학치료가 치료적으로 유용성을 가지려면 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초기, 중기, 후기, 종결의 단계와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민옹전」에 나타난 문학치료의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연구자가 설정한 임상적 문학치료의 과정과 흐름은 다음과 같다.

① 치료의 시작: 관계형성

상담초기에 동기부여가 안 되면 합의가 되지 않고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담자를 만나 생활규칙 등 외적인 틀은 어떠하며, 얼마나 잘 유

지되고 있는지? 그 들의 장단점과 갈등 문제를 파악한다. 대화를 통해 내담자의 관찰자아와 경험자아⁷⁾를 살펴본다.

② 치료 중기:

상담의 과정에서 치유의 효과를 가져오는 2대 요소는 감정의 해소와 통찰의 달성이다. 이것은 중기에 일어난다. 통찰의 과정은 습득된 지식이나 사건이 특별한 정서적 경험을 거쳐 자아 속으로 들어와 통합함으로써 자기(self)의 일부로 인식하게 된다. 통찰은 단순히 지적으로 안다는 것과 다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것이며 인간관계를 이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③ 치료의 후기:

깊이있는 통찰을 위하여 명료화(Clarification)와 해석(Interpretation)이 필요하다. 명료화는 반복된 지적 통찰의 논리적 이해의 과정으로서 마음 속에 어렴풋한 사건과 그에 대한 감정들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과정이다. 해석은 지나온 삶의 방식과 감정패턴들에 대해 궁극적 의미를 설명하여서 내담자로 하여금 그의 삶의 새로운 계기가 되게 하는 것이다.

④ 종결

치료가 합의에 의해 시작된 것처럼 치료의 종결도 내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관계의 형성에서 내담자에게 치료자가 중요한 대상(Significant other)으로 내재화되었다면, 종결에서는 마음속에 내재화된 대상의 상실에 대한 애도반응(Mourning process)을 하는 것이다. 상실의 주제를 잘 다룰 때 내담자는 최후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

7) 치료에 참여하는 내담자의 자아는 관찰적 요소와 경험적 요소로 구성되며, 전자는 후자를 보고하거나 때로는 평가하는데 참여한다. 경험적인 요소가 감정이 넘쳐서 관찰적인 요소를 압도하게 되면, 내담자를 안심시켜 주고 내담자의 혼란된 감정을 완화시켜 주며 관찰적인 요소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개입한다(K.M. Colby, 『정신치료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의학사, 1992, 67쪽).

3. 문학치료의 과정으로 본 「민옹전」

3.1. 「민옹전」의 구조

「민옹전」은 ‘민옹’이라는 사람에 대해 ‘나’라는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 보여준다. 소설의 맨앞에는 민옹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짤막하지만 인상적인 소개가 있다. 그 다음 민옹이 서술자를 만나서 일어난 일, 서술자의 친구들과 만나서 주고받은 이야기, 그리고 서술자와 민옹의 마지막 만남에서 벌어졌던 에피소드를 소개한 후, 민옹의 죽음을 알리고 그를 애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소설의 흐름을 치료의 단계적 흐름으로 나누면 다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나이 일흔이 넘은 민옹이라는 사람의 신년 아침마다 하는 기이한 글쓰기에 대해 소개한다.
- ② 우울중에 걸린 서술자 ‘나’와의 만남.
- ③ 민옹은 서술자인 ‘나’의 친구들의 짓궂은 질문에 빠있는 농담으로 화답함.
- ④ 민옹과의 마지막 만남.
- ⑤ 그의 죽음을 애도함.

신분과 나이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루어진 민옹과 서술자의 만남은 이야기꾼과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관계, 소설가와 독자, 치료자와 내담자 등의 다양한 관계를 암시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기이하고 놀랍고, 반갑고 알미운” 민옹이 풍자와 골계에 가탁해서 세상을 불공스럽게 회롱하는 이야기가 사회병폐를 고치는데 과거의 어떤 문학보다도 뛰어난 효과를 지닌 다⁸⁾고 말하고자 했다.

「민옹전」을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민옹과 서술자를 이야기꾼

8) 조동일, 「한국 웃음문화의 전통」, 『한국의 웃음문화』, 소명문화, 2008, 25쪽.

과 이야기를 듣는 독자, 혹은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런 설정을 염두에 두어 읽으면, 소설의 전개과정은 하나의 치료과정처럼 보인다. 이야기의 진행과 흐름은 민옹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과 이야기로 중횡무진 달리지만, 하나의 치료곡선을 형성한다. 충격적인 언행을 보이는 초기 관계형성에서부터, 입담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뒤집어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이 터져 나오게 하는 중기과정을 거쳐, 서술자(나)의 은어적 표현에 의미 전도로 맞서는 후기를 거치더니, 이별과 애도라는 종결까지가 그러하다.

3.2 이야기의 시작: 치료자, 민옹

처음 이야기의 시작은 민옹의 이력 소개로 시작한다.⁹⁾

민옹감은 南洋사람이다. 戊申年(1728) 민란에 관군을 따라 토벌에 끼여서, 그 공으로 첨사 벼슬을 잠시 했으나 끝내 벼슬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총명하며 말을 잘하였다. 특히 옛사람들의 기이한 절개와 위엄을 흠모하고 그들의 전기를 읽고는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는 일곱 살이 되자, 벽에 “項囊은 그 나이에 남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썼으며, 열두 살때는 “甘羅는 이 나이에 장군이 되었다”라고 썼다. 열세 살 때는 “外黃兒는 그 나이에 有勢하였다”고 썼고, 열여덟 살때는 “霍去病은 이 나이에 기려므로 출정하다”, 스물네 살때는 “項籍은 이 나이에 오강을 건넜다.”라고 썼다.

마흔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자, 민옹은 커다랗게 “孟子는 그 나이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크게 썼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게 말을 잘하였고 특히 옛사람의 전기를 읽고 탄식

9)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한문소설 「민옹전」의 일부는 이가원·허경진이 우리말로 옮긴 「연암 박지원 소설집」과 신호열·김명호가 옮긴 「연암집」(둘베개, 2007)을 참고로 하였다.

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다는 부분, 또 때에 맞게 적절하게 인물들을 인용하는 것 등은 그가 이야기꾼적 재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낮은 자리 벼슬을 잠시 하였으나, 그만둔 연유는 생략된 채 독자의 상상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그는 위인들을 본받아 이 세상에서 기상을 펼치고 싶어하는 포부를 지니고 있다.

그 뒤에도 해가 바뀔 때마다 이런 글을 쓰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아 그의 집의 벽은 온통 새까맣게 되었다. 일흔이 되자 그의 아내가 “영감 올해는 까마귀를 그리지 않으시려오”라고 놀렸다. 그러자 민옹은 기뻐하면서 “그렇지. 당신은 빨리 먹이나 알아주구려” 하더니 곧 “范增은 이 나이에 기이한 피를 좋아하였다”라고 커다랗게 썼다. 그의 아내가 발각 화를 내며, “피가 아무리 기이하더라도 장차 언제 쓰시려오?” 하고 따졌다. 민옹은 웃으면서 “옛날 呂尙은 여든 살에 장수가 되었지만, 새매처럼 드날렸다고. 나를 여상에게 비한다면 어린 아우뻘밖에 안 된다고요”

부인의 빈정거림과 글씨로 벽이 새까맣게 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민옹은 세상에서 기상을 마음껏 펼쳐 보이지 못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민옹의 삶은 읽는 이에게 회한한 느낌을 준다. 보통은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비분강개하거나 청승맞게 표현하기 십상인데, 민옹은 자신의 삶 자체를 골계와 해학으로 표현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현재적 조건인 나이라는 관습들에 매몰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모색하며 전화를 꾀하려고 노력한다. 즉 작품의 도입부는 민옹이 자신의 삶을 다독이며 글읽기와 글쓰기로 스스로를 치유해 나간 것이라 할 수 있다.

3.3. 치료 초기: 관계형성과 우울증

3.3.1. 치료초기: 관계 형성

소설에서 민옹과 서술자인 ‘나’는 초기, 중기, 종결이라는 단계적 만남을

가진다. 각 단계에서 두 사람은 어떤 내용과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내담자로서 나는 어떤 인물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민웅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소설은 우울증에 걸린 열일곱의 '나'라는 인물을 만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민 영감은 기이한 사람이지요. 노래도 잘 부르지만 말도 잘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기이하고 능청스럽고도 걸쭉하지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치고 마음이 상쾌하게 열리지 않는 이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그를 "놀러오라"고 집으로 청한다.

현대의 치료는 환자가 치료자를 찾아가는 내담의 형태로 굳어졌지만, 민웅은 서술자 '나'의 청으로 서술자의 집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듯 처음 민웅과 '나'의 만남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것으로 현대의 문학치료에서 치료자와 내담자의 만남과 별반 다르지 않다. 민웅은 우선 '나'의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그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민웅이 처음 '나'의 집에 왔을 때 나는 벋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고 있었다. 민웅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통소 부는 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그의 뺨을 치며 꾸짖었다. "주인은 즐겁게 놀자는데 너는 어째서 성난 꼴로 있느냐?"고 한다.

내가 놀라며 묻자, 그는 통소 부는 자는 눈알이 잔뜩 튀어나오도록 사나운 기운을 품었다고 하고, 피리 부는 자는 얼굴을 돌리고 우는 듯하다고 하고, 장구 치는 자는 이마를 찌푸린 채 시름에 겨운 듯하며 심지어는 하인에 이르기까지 수심에 젖은 듯 크게 두려워하는 것같이 묵묵히 앉아 있으니 이런 음악으로 어찌 기쁠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나이 일흔의 생활신조로 '기이한 피를 좋아하였다'는 글을 자신의 집 벽에 써붙였던 민웅의 기이함은 치료자로서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한다. 어떤 음악을 연주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작품 속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통소를 불려고 하면 입주변과 눈알이 튀어나온 것처럼 될 테이고, 피리를 불려면 얼굴을 돌리고 시선을 낮게 해야 하며, 음악을 연주하는 데 하인

들이 시끄럽게 떠들 수 없었을 테니, 연주하는 사람들과 집 분위기가 문제였다기보다는 민웅이 그 상황을 일부러 전환하기 위해 회화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하여 민웅은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었으며, 나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후, 자신의 이름은 유신이고 나이는 일흔셋이라고 스스로 말한다. 그리고 나에게 무슨 병이 들었는지, 머리가 아픈 것인지, 배가 아픈 것인지를 차례로 묻는다. 머리가 아픈 것도 배가 아픈 것도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는 “그렇다면 당신은 병이 아니라고” 하고 응수한다. 그리고는 지게문과 들창을 걸어 괴어 시원한 바람을 쐬게 한다.

- ① 민웅이 지게문과 들창을 열어 환기하자 ‘나’의 마음이 차츰 시원해져서 예전과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낀다.
- ② 불면증과 식욕이 없음을 알고는 민웅은 몸을 일으켜 그것을 치하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시간을 갑절이나 살고,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니, 수(壽)와 부(富)를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이유를 든다.
- ③ 군침나게 식사를 해서 나도 덩달아 밥을 먹게 했다.
- ④ 밤에는 난생 처음 보는 경전 외우기 시험을 벌여 한곳에 집중하게 하고, 긴장한 탓에 피로감을 느껴 저절로 잠들게 한다.

민웅이 지게문과 들창을 열어 환기한 것은 나의 병이 심리적인 것임을 알고 정신의 환기를 위한 것이다. 밥과 잠을 묻는 질문은 생활규칙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일상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경전 외우기는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한곳에 고착되거나 매몰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우기’라는 단순한 작업을 통해 집중력을 높이고, 피로감에 잠을 잘 수 있게 하였다.

또 대화를 통해 나의 관찰자아와 경험자아를 살펴본다. 나의 경우, 관찰적인 요소가 경험적인 요소를 압도하므로,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감정이 일어나도록 나에게 기이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색다른 기분과 감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개입하였다. 예를 들어 ②처럼 강렬한 아이

러니와 역설을 통해 충격을 주어 사유의 맥락을 바꾸거나, ①,③,④처럼 주도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은근슬쩍 상황을 바꿈으로써 나에게 당혹감이 일게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민용은 나의 몸과 마음의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조절하고 신뢰감을 쌓는데 성공한다.

3.3.2. 「민용전」에 나타난 우울증

민용이 만난 ‘나’는 소설에서 스스로 우울감을 호소한다. 그렇다면 나의 우울증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를 위해 우울증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분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Freud와 Klein은 공격성이 자기 내부로 향한 것이 우울증이라고 보았으나, Bibring(1953)은 우울증이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에서 생겨난다고 보았다. 존경받고 사랑받기 위한 열망, 남보다 강하고 뛰어나게 되기 위한 열망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선하게 되기 위한 열망 등 스스로가 높은 가치를 부여한 세 가지 자기에적 열망이 이들의 행동기준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든 상상으로도든 이러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자아가 알게 되었을 때 우울증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울해진 환자는 무조감(helplessness)과 무력감을 느낀다. 어떤 중례들에서는 이러한 무조감을 자아가 알게 됨으로써 공격성이 자신의 내부를 향하게 되나 이것은 단지 이차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Bibring은 생각하였다. 그는 자존심을 낮추는 자기에적 좌절이나 손상이 임상적인 우울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¹⁰⁾ 또 그는 “우울증이란 자아의 자존심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붕괴된 상태(partial or complete of the self-esteem of the ego)이다. 왜냐하면 자아의 열망으로서의 자아이상이나 초자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동안은 자아가 이러한 열망들에 맞추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¹¹⁾라고 기술하였다.

10) Glen O. Gabbard 지음, 이정태 역, 『역동정신의학』(제3판), 하나의학사, 2002, 48쪽.

11) 위의 책, 248쪽.

또 Arieti(1977)는 “심한 우울증 환자에 대한 정신치료에서의 광범위한 경험에 기초하여,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한 환자의 기존의 이상주의, 즉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배적 타인(dominant other)을 위해서 생존한다는 관념(ideology)이 있음을 가정하였다. 배우자가 지배적 타인인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조직이나 이상(理想)도 지배적 타인이 될 수 있다. 이루기 어려운 목적이나 계획이 개인의 심리세계에서 지배적 위치에 놓이게 될 때는 이들을 지배적인 목표 혹은 지배적인 사상이라고 부른다.”¹²⁾ Arieti의 개념도 어느 면에서는 Bibring의 개념을 연상하게 한다. 왜냐하면 Arieti의 개념은 그 우선적 목표가 성취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발생하는 환자의 무조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목표를 포기하도록 하는 어떤 다른 계획도 상상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느낀다. 그들은 만약 지배적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없다면, 또는 자신이 스스로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그 삶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믿는다. 이 환자들은 자신이 포기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삶의 계획에 고집스럽게 집착한다.¹³⁾

「민웅전」의 작가 박지원은 명문에서 태어났으나 글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열여섯에 장가든 뒤에 장인과 처삼촌에게서 대강 배운 다음에 바로 자기 나름대로 글을 지었다.¹⁴⁾ 그는 스무 살 무렵부터 몇몇 벗들

12) 위의 책, 249쪽.

13) 위의 책, 249~250쪽.

14) 연암의 할아버지 박필균은 신임사화(辛任士禍)로 노론과 소론이 분열될 당시, 집안의 당론을 노론으로 이끄는 한편, 영조 즉위 후 정계에 진출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연암은 16세에 전주 이씨와 결혼한 후, 장인 이보천(李補天)과 그 아우인 이양천(李亮天)의 지도를 받으면서 학업에 정진하였는데, 이들은 송시열에서 김창협으로 이어지는 노론학통을 충실하게 계승한 산림처사였다. 이양천은 홍문관 교리 등 벼슬을 지내다가 상소문 사건으로 유배되었던 학자이다. (그는 1755년, 연암이 19세 때 귀양에서 풀려난 후 바로 사망하였다). 연암은 이양천에게서 「사기」를 배우면서 특히 「신농군전」도 배웠다. 이것은 연암이 소설을 쓰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때에 「이충무공전」을 지었다. 18세 되던 1754년 「

과 근교의 산사를 찾아다니며 과거 준비를 한다. 아들 박종채가 아버지의 생애를 기록한 『過庭錄』에 따르면, 문장으로 이름이 났으나 과거급제를 원하지 않았다. 마지못해 과거장에 가서는 답안을 다 작성하지 않고 내기도 하고, 이상한 그림을 그리면서 판전을 부리기도 했다¹⁵⁾고 한다.

박지원은 Bibring이 말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생기는 긴장 때문에 우울증이 유발되어 우울해지는 무조감(helplessness)과 무력감”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 스무 살 무렵 박지원에게 사나흘씩 잠을 못 이루고 음식만 보면 거부반응을 보이는 증세가 생긴다. 음악, 서화, 칼, 거문고 등에 탐닉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달래보아도 별반 효과가 없을 정도로 뿌리가 깊었다. 연암은 이때 그런 자신을 달래기 위해 글을 써내려갔던 것으로 보인다. 글의 소재들이 주로 시정의 풍문, 그것도 익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야담들이었다.

『민옹전』은 이렇게 씌어진 『방경각외전』에 실린 작품 가운데 하나인데, 박지원의 청년시절의 흔적으로, 이 작품들이 완성된 것은 그의 나이 불과 스물한 살 때였다.¹⁶⁾

소설 속의 ‘나’는 작가 박지원의 분신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나의 우울은 시대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옹도 내란이 일어났을 때 출전해서 잠시 관직을 얻고 계속 불우하게 지냈다. 그런 연유로 ‘나’를 이해하였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감정전환을 위해 기이한 행동을 설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광문자전을 지어 여러 선배들에게 돌려가며 보여서 칭찬을 받았다. 19세 되는 1755년에는 「마장전」과 「예덕선생전」을 지었다. 21세인 1757년에는 「민옹전」을 지었고, 22세인 1758년에는 「대운암참수시」의 서문을 썼다. 28세 되는 1764년에는 「양반전」, 「광문자전」 후서를 썼다. 29세 때는 「김신선전」, 44세인 1780년에는 박명원(영조의 부마, 연암의 8촌형)의 자제군관(子弟軍官) 자격으로 청(靑)의 北京(북경)에 다녀왔다. 47세인 1783년 「열하일기」를 완성하였다.

15) 박종채 지음, 김운조 역주, 『역주 과정록』, 태학사, 1997, 29~31쪽.

16) 이강엽, 「연암 박지원의 삶과 문학」, 『연암 박지원 소설집』, 서해문집, 2006, 166쪽.

3.4. 치료 중기: 감정의 해소와 통찰

「민웅전」에서 치료적 작업의 중기에 해당하는 것은 ‘나’에 머물지 않고 나의 집에서 객들을 만나 이야기판을 벌이는 부분이다. 이 장면에 이르면 난상토론이 연상된다. 객들에게 둘러싸여 짓궂은 질문을 받지만 민웅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힘없이 응수한다. 민웅과 객들이 나눈 질문과 대답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따져보겠다.

- ① 귀신을 보았느냐는 질문에 등잔 어두운 곳에 앉은 이를 가리키며, 귀신이 여기 있다고 했다. “밝은 데 있으면 사람이고 어두운 데 있으면 귀신인데 어두운 데 있으면서 밝은 곳을 바라보고 형체를 숨기고 사람을 엿보니까 귀신이 아니겠는가”하고 되물어 모든 사람을 일제히 웃게 한다.
- ② 신선을 보았느냐는 질문에 ‘가난한 사람이 신선’이라고 답하고 그 이유는 부자는 늘 세상에 연연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세상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③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을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두꺼비와 토끼의 나이다툼 설화를 인용하여 독서를 많이 한 자가 나이를 많이 먹은 자라고 답한다.
- ④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소금’이라고 한다.
- ⑤ 불로초에 대한 질문에도 인삼, 구기자 같은 귀한 약초를 백일 동안 먹고 음식을 먹지 않았더니 죽을 것만 같았는데, 쌀로 ‘밥’을 지어 먹으니 살아났다고 하면서 우리가 늘 먹는 밥이야말로 불로초라고 한다.
- ⑥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기 자신이라고 답한다.
- ⑦ 어떤 사람이 황해도에 곡식을 해치는 황충이 발생해서 관가에서 백성들에게 황충을 잡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황충보다 더 걱정거리인 종로거리를 매우는 황충들이라고 응수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실제로 민웅이 말한 벌레가 있는 줄 알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한다.

민웅은 ‘나’의 우울의 원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①, ②

의 낮과 밤, 빈과 부처럼 대립항에 대한 통찰을 주거나 ③,④,⑤의 독서, 소금, 밥처럼 일상적 가치를 지혜로운 이야기로 새롭게 인식하게 하거나 ⑥,⑦에서는 자신과 부패한 벼슬아치에 대한 함축적 이야기를 통해 자아와 세계의 갈등문제를 통찰하게 한다. 한마디로 우울의 내용(content)보다 과정(process)을 우선시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치료에서는 내용 자체보다는 과정에서 감정과 문제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다루어져야 함을 잘 보여준다. 이때 민용은 치료과정에서 설화 혹은 우화를 들려주거나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지어 들려준다. 치료의 매개로 사용한 것은 웃음을 유발하는 함축적 이야기를 통한 우회적인 방식이다.

질문과 대화의 형태 또한 마찬가지다. 자유롭게 객들의 질문에 유머를 발휘하여 대답하여 상황을 부드럽게 이어나간다. 그의 유머는 팽팽한 심리적 긴장을 이완시키고, 사회적 검열의 장벽을 넘도록 한다. 황충 이야기가 그런 메타포(metaphor) 사용을 보여준다. 그는 웃음의 원리를 차용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빼있는 사회비판을 하였다. 이처럼 민용은 유머를 통해 사회와의 불화 속에서도 어떻게 사람들과 부드럽게 관계 맺고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중기에서 민용은 '나'가 아닌 객들과 대화하는 것으로 나온다. 마치 집단상담의 장면처럼 '나'는 구경꾼의 자리에 있다. 때로는 친구들 편에서 민용을 놀리고, 때론 민용의 말에 감탄하는 서술자가 바로 '나'이다. 치료 초기에 비해 관찰자아보다 느낌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경험자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3.5. 치료의 후기: 명료화, 해석

3.5.1. 나의 민용 놀리기와 맞받아치기

이 소설의 결말부는 치료적 환원성을 잘 보여준다. 치료가 종결되려면 결국 '지금 나는 왜 힘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현재성의 문제를 짚어

내야 한다. 이야기의 결말 부분을 통해 민옹과 나는 어떻게 종결을 준비하는지 보도록 하자.

민옹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왔는데, 나는 그를 이가 빠져서 말소리가 웅얼 웅얼하다는 뜻의 은어 ‘春帖子 獯啼’라고 놀린다. 그러자 그는 내가 한 말의 핵심을 간파하여 풀이하면서 글자들을 다시 떼고 붙이면서 오히려 그 말의 뜻을 ‘조화’와 ‘크다’로 바꾸어 버린다. 그러면서 그는 “나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칭찬한 것”이 된다고 말한다.

치료 중기에서 후기로 오자, 나는 민옹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며 감정을 솔직히 드러낸다. 민옹을 향해 ‘초라한 늙은 개의 웅얼거림’이라고 한 말은 공격적 욕망이다. 민옹은 지금까지 치료적 역할을 하며 보살펴주었던 나를 다시 만나서 그로부터 자신에 대해 조롱하는 말을 들었는데도, 오히려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보여주는 말로 받아넘긴다. 이것은 내담자가 어느 정도 치료적 과정을 거친 다음 치료자를 상대로 사적 감정 혹은 분노를 유발시키는 행동을 했을 때 치료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이때 민옹은 ‘나’가 문제 삼은 핵심 감정을 명료화하고, ‘나’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측면으로 해석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어떤 아이가 상대를 놀리기 위해서 “바보!”라고 하면 다른 아이가 “바다의 보물이라고?” 하는 식으로 일부러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 받아치듯이, 은어의 의미를 “이가 빠져서 웅얼대는 게 듣기 싫다는 뜻일 테고”라 해석한 다음 글자 자리 바꾸기와 조합을 달리하여 ‘조화’와 ‘크다’라는 정반대의 의미를 창조해 낸다.

민옹은 ‘나’의 표면적인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감정적 어조에 귀를 기울였다. 더불어 공격한 나에게 부정적으로 투사하여 같이 분노하거나 불쾌해 하지 않는다. 동요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미의 전도를 통해 정면으로 맞받아쳐서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말로 상대의 허를 찔러 간접적으로 일부 인정하게 만든다. 이렇듯 이 부분에서 드

러낸 민옹의 언어유희적 태도는 나로 하여금 내면의 날카로움과 갈등을 풀어내게 하는 연습장면 연출이었다고 볼 수 있다.

3.5.2. 치료적 결과로서의 이문위희(以文爲戲)

말장난으로 대화하기가 서술자 나에 대한 치료의 명료화라면,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민옹전」의 작가 박지원의 개인 이야기로 돌아가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지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격식에 맞는 글을 배우고 익혀 과재에 급제 하는 과정을 거부하고 자기 세계를 개척해 문학과 사상 양면에서 놀라운 혁신을 했다. (중략) 法古創新을 표방하고 고문을 쓴다 하면서, 옛것을 야유의 대상으로 삼아 뒤집어 엎었다. 잘 알려진 고전의 한 대목을 가져다 풀이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서 반발을 가질 필요가 없게 하고, 기발한 착상으로 논의를 바꾸어 독자를 당황하게 하다가, 비근한 사물이나 일상의 경험을 증거로 대서, 원래의 주장을 반대의 것으로 대처하는데 이르렀다. 오랜 권위를 누리던 고정관념을 깨고 사물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념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탐구자가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감각훈련을 했다.

(중략) 文風을 어지럽히고 질서를 혼란시킨다는 점을 우려한 정조가 이른바 文體反正을 일으켜 연암체를 금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연암은) 불우해진 탓에 자포자기에 빠져 以文爲戲하고, 문장을 빌려 不平之氣를 나타내기는 했으니 반성해 마땅하다고 했다.¹⁷⁾

연암은 47세인 1783년 「열하일기」를 완성하였고, 50세 때인 1796년 이조판서 유언호의 천거로 처음 관직에 올라 선공감감역(善功監監役), 한성부판관, 안의현감 등을 지냈다. 안의현감 재직 시에는 당시 문단에 신문체를 유행시켰다는 이유로 정정한 문체로 속죄문을 지어 바치도록 당시 임금인 정조가 명령한 '문체반정'을 겪게 된다. 50줄의 늦은 나이에 처음 벼

17) 조동일, 앞의 글, 23~24쪽.

슬길에 올랐고, 큰 벼슬을 한 것도 아닌데도 박지원의 글은 당시 조선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그는 '후배들은 자신의 문체를 본받지 말고 고문을 배우라'고 권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문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문제가 문체를 통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조선후기 성리학의 비생산성과 폐쇄적인 학문 경향, 대의명분에 사로잡힌 북벌론에 맞선 박지원의 사상은 근대화를 위한 논리, 실학이었다. 선비의 학문은 농사, 장사, 공업의 원리를 모두 담고 있어야 한다고 했고, 선비와 벗하면서도 농사꾼이나 공쟁이와도 어울렸다.

왕이라는 절대권력이 반성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박지원은 자기 문체에 대해 불우한 탓에 자포자기에 빠져 그랬다고 변명하면서 이문위회(以文爲戲)를 반성한다고 했다. 이 말은 자칫 자조적인 어조로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이 들리나, 이문위회(以文爲戲)했다는 말에 함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글쓰기에 대한 반발 혹은 비판을 담고 있다. 이는 이문위교(以文爲敎) 혹은 이문위도(以文爲道)에 대한 반발이고 공격이다. 글로써 놀이를 삼는다는 뜻인데, 그 놀이는 억눌린 감정을 발산하는 놀이며, 의미를 창조하고 사유하게 하는 놀이다. 그러므로 박지원의 문제 대응방식으로 나타난 이문위회는 치료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이들이 나비를 잡는 것을 보면 가히 사마천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앞다리는 반쯤 구부리고 뒷다리는 비스듬히 추켜든 채 두 손가락을 집게 모양으로 만들어 다가가서 잡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에 나비는 곧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어 홀연히 웃다가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미치니 이것이 사마천의 글을 쓸 때의 심정이었습니다(박지원, 『연암집』 제5권).

연암은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의 심정을 어린아이의 나비잡기와 그 실패에 빗대고 있는데, 이것은 박지원 자신의 글을 쓸 때의 심정을 동일시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문학치료에서 치료자의 문학을 매개로 한 언어적 접근과 내담자의 현실문제 사이의 간극을 적절히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나비잡기에서 ‘나비’를 내담자의 문제 혹은 내담자 전체 모습이라면, 잡으려는 아이가 치료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치료자는 문학과 대화를 통해 문제의 정체에 접근하려고 하지만, 잡기가 쉽지 않다는 면에서 그러하다. 또 정신치료의 과정에 적용해 볼 때도 의미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치료자는 정확한 분석으로 문제를 포착하여 나비(문제)를 잡으려고 하지만, 나비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비의 날개짓을 지켜보는 것이 정신치료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치료 중기에 갈등과 욕망이 잘 다루어져서 직면(confrontation)이 이루어지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어 정서와 행동, 인식의 틀에 변화가 생긴다.

3.6. 종결과 애도

이듬해 민용은 세상을 떠났고, 나는 이에 그의 아들들의 행적을 말하며 시를 지어 그의 죽음을 슬퍼한다. 세상 사람들은 “민용이 지나치게 넓고 기이하며 얽매이지 않고 호탕하지만, 그의 성격은 깨끗하고 곧으며 즐겁고도 밝다. 『주역』에 밝고, 노자의 글을 좋아했으며, 그가 대체로 엿보지 못한 글이 없다”고 하였다.

종결은 헤어짐이다. 종결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종결에서는 마음속에 내재화된 대상의 상실에 대해 애도반응을 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함을 슬퍼하는 순간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상실(Loss)을 이겨낼 때 치료가 잘 마무리된다.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치료의 초기, 중기, 후기에는 민용에 대한 ‘나’의 평가나 해석이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종결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는 ‘나’의 마음이 ‘뇌문(誄文)’을 통해 잘 나타난다.

아아, 민용이시여
괴상하고도 기이하며, 놀랍고도 잠쩍스럽구려.

기쁘고도 노여우며, 또한 알밸구려.
 저 벽에 그린 까마귀가 끝내 매가 되지 못했구려
 영감계선 뜻을 지닌 선비였건만
 마지막 늙어 죽을 때까지 쓰이지 못했구려
 내 그대를 위해 傳을 지으니
 아아, 그대는 죽어도 죽지 않았구려.

‘나’는 진심으로 민옹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나’가 느낀 민옹에 대한 감정은 단순하지 않다. 복잡다기하다. ‘기쁘고도 노여우며, 알밸다’든가, ‘뜻을 지닌 선비였으나 늙어 죽을 때까지 쓰이지 못했다’는 표현에서 말해 주듯이 민옹의 전체 모습을 비교적 잘 형상화해 내고 있는 듯도 보인다. ‘나’는 「민옹傳」을 쓴 작가가 되었다. ‘그대는 죽어도 죽지 않았구려’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민옹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새롭게 보고 존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씌어진 「민옹전」은 「방경각외전」에 실렸다. 거기에 실린 작품들은 당대 사회 현실의 모순을 풍자함으로써 실학자로서의 박지원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작품집의 제목이 굳이 ‘외전(外傳)’인 것은 주인공들이 정사(正史)와는 무관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연암은 이런 인물들을 활용하여 주변의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담아내었다.¹⁸⁾

이렇듯 서술자 나는 「민옹전」을 통해 현실에서 살아숨쉬던 민옹의 인간적 면모를 절제된 표현으로 독특하게 담아내었고, 18세기 삶의 다양한 국면을 사실적으로 포착하여 그 시대의 풍경을 작품배경으로 삼았다. 그는 풍자문학 작가가 되어서 자신의 존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이는 상대에 대해 은밀한 공격이며, 억압된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며,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기도 하다. 서술자 ‘나’를 박지원의 부분 자아라고 본다면, 민옹의 죽음을 통해 나는 내면의 날카로움과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18) 이는 연암이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마천의 「사기」에서 傳의 형식을 수용한 것과 그 관계가 밀접하다.

4. 결론

작가 박지원은 시대의 문제를 가장 첨예하게 수렴할 수 있는 주제와 그 주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였고 그것을 『방경각외전』이라는 책으로 남겼다. 조동일은 “이야기로 전하는 웃음의 격을 높이고 효용을 확대한 것이 풍자문학이다. 풍자문학의 유산은 다양하다. (중략) 여러 풍자문학의 작가들 가운데 박지원이 특히 우뚝하다”¹⁹⁾고 했다. 박지원은 자아와 세계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일대 전환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정에 떠도는 야담 듣기와 글쓰기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연암체’다. 그의 문체는 박지원의 사상과 감정뿐 아니라 당대를 잘 포착하여서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서술자가 민옹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기록하는 傳이라는 형식을 취한 「민옹전」은 문학치료의 초기, 중기, 후기, 종결이라는 단계와 흐름이 잘 드러나 있는 문학치료의 전범이라 할 수 있다. 그와 함께 치료과정에서 민옹이 풀어내는 은유와 우화로 함축된 이야기들은 문학치료 과정에서 매개체적 역할을 하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뿐 아니라 작품 속에서 실제 병리적인 문제인 우울증을 다루면서 ‘삶은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가 타인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문학치료의 원리와 가치를 보여 주었다.

● 핵심어: 문학치료, 「민옹전」, 박지원, 정신치료, 문학치료과정

19) 조동일, 앞의 글, 23쪽.

<참고 문헌>

- 김은정, 「연암 박지원의 풍자문학에 나타난 정치적 상징」,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박기석, 「박지원 문학 연구」, 삼지원, 1984.
- 박기석, 「연암 박지원의 문학과 문학치료」, 『인문논총』11, 서울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03, 5~17쪽.
- 박기석, 「민옹전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제6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3.
- 박지원 저, 신호열·김명호 옮김, 「연암집 상, 중, 하」, 돌베개, 2007.
- 박지원, 「연암 박지원 소설집」, 서해문집, 2006.
- 박지원, 「연암집」, 경인문화사, 1974.
- 박지원 저, 박정수 옮김, 「연암집(한국문집총간)」 제253권, 경인문화사, 2001.
- 박지원 저, 김연호 옮김, 「열하일기」, 하서, 2008.
- 박종채 저, 김윤조 역주, 「역주 과정록」, 태학사, 1997, 29~31쪽.
- 박종채 저, 박희병 옮김,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2008.
- 신용하, 「조선 후기 실학파의 사회사상 연구」, 지식산업사, 1997.
- 신해식, 「연암 박지원 서예미학의 실학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기원, 「연암 소설 연구」, 을유문화사, 1977.
- 이민희, 「심리 치료 측면에서 본 민옹전 소고」, 『고전문학연구』, 한국고전문학회, 2007, 429~459쪽.
- 유미림, 「조선 후기의 정치사상」, 지식산업사, 2002.
- 조동일, 「박지원의 문학사상과 소설론」,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일조각, 1978.
- 조동일, 「한국 웃음문화의 전통」, 『한국의 웃음문화』, 소명문화, 2008.
- 황인덕, 「이야기꾼으로 본 민옹전의 민옹」, 『구비문학연구』8, 한국구비문학학회, 1999, 67~98쪽.
- Glen O. Gabbard 지음, 이정태 역, 「역동정신의학」(제3판), 하나의학사, 2002.
- K.M. Colby, 「정신치료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의학사, 1992.

<Abstract>

Literary Therapy in the course of treatment for “Minongjeon”

Shin Hea-geum

In this research of Park Ji-won , “Minongjeon” Storytellers and stories through the therapeutic features to see what was in reality. To do so, the traditional “minongjeon” therapeutic approach for the field of psychotherapy in a more even treatment of the literature, some features are there? How do I set up a healer and a patient literature in treatment and healing process, How is deployment? If the initial, medium, a gradual flow is terminated, and the role of literature in each step, something that looked at which ones are important tasks done.

In particular, a narrator the type of encounters taken to record “Minongjeon” treatment in the literature of the early, middle course, the latter terminate, and the flow is well exposed to the termination of treatment in the literature can be called war criminals. Treatment with him in the process of metaphor and allegory to Minong’s story implied in the literature treat the volume as a parameter, and that will be of important significance. It works as well as depression, dealing with the problem in the actual pathology of the life story and the story is able to reconstruct the lives of others, the literature has shown that treatment of the principles and values.

The therapeutic potential of our literature and form, orientation, tradition, and I think some will be say.

• Key words: Literary Therapy, “Minongjeon”, Park Ji-won, psychotherapy, Literary Therapy in the course

* 이 논문은 2009년 7월 15일 투고되었고, 8월 5일 심사 완료되어 8월 7일에 게재 확정되었음.